

TV 25일

★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.

KBS1	KBS2	MBC	KBC/SBS
00 KBS 뉴스광장	00 생방송 오늘 1~2부	6 00 MBC 뉴스투데이 1~2부	00 출발! 모닝와이드 1~2부
50 인간극장		7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<주홍글씨>	15 KBC 뉴스지금 40 출발! 모닝와이드 3부
25 KBS 광주 열린마당	00 KBS 아침 뉴스타임	8 30 살맛나는 세상	40 아침연속극 <장미의 전쟁>
30 KBS 뉴스	00 희망릴레이 20 아침드라마 <사랑하길 잘했어> 50 여유만만	9 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	20 좋은 아침
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TV 문화 행복한 세상		10	40 SBS 뉴스
00 그 사람이 보고싶다 55 비틀걸 고요실	00 지구촌 뉴스 20 TV특강(재)	11 00 TV속의 TV	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
00 KBS 뉴스12	00 일일 연속극 <웃어라 동해야>(재)	12 00 MBC 뉴스 25 그린실버 고향이 좋다 스페셜	00 SBS 12 뉴스 30 열린TV 시청자세상
00 열린채널 30 내 친구 우비소년(2재)	05 대국인 토크쇼 안녕하세요(재)	1 15 MBC 스포츠 25 춘계 한국농구선수권대회 결승전(고학년부 결승)	30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스페셜
00 KBS 뉴스 10 현정로 동행(재) 55 세계는 지금(재)	10 다큐멘터리 3일(재)	2 45 공감 특별한 세상 스페셜	00 SBS 뉴스 10 인문학열전 <삼국유사에서 일어난 일>
10 한국 현대사 증언 TV 자서전(재)	00 KBS 뉴스타임 05 중앙아재(재) 35 TV유지권	3 05 스포츠 매거진(재)	00 하늘에서 본 지구(3재)
00 KBS 오늘의 경제 10 KBS 네트워크 특선 볼륨(재주)	05 누가 누가 잘하나	4 00 MBC 뉴스 10 천안함 1주기 특별생방송 <그날 이후>	00 SBS 애니갤러리 30 전통문화의 향기(재)
00 KBS 뉴스5 20 생생 3월!	00 사랑의 가족 30 성공에감	5	00 SBS 뉴스라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씨네포트
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 칼럼 우리사는 세상	00 KBS 뉴스타임 05 유적뱅크	6 00 MBC 뉴스 10 남도에 살고 싶어 50 생방송 전국시대	15 금요일 n(엔) <도시 열> 55 시사인터뷰 후
00 KBS 뉴스네트워크 30 세상사는 이야기 <광주참여>	45 축구 국가대표 A매치 평가전 <대한민국 vs 온두라스>	7 45 일일시트콤 <중앙 내 사랑>	20 일일드라마 <오박꽃 농성>
25 일일연속극 <웃어라 동해야>		8 15 일일연속극 <남자를 만났네> 55 MBC 뉴스데스크	00 SBS 8 뉴스 25 KBC 8 뉴스 45 SBS 스포츠 뉴스
00 KBS 뉴스 9		9 55 스타오디션 <위대한 탄생>	50 HD다큐시리즈 10 유엔토크 내 마음의 고백 <사미지> 55 긴급출동! SOS24
00 소비자 고발 45 세계는 지금	00 TV특강대	10	05 MBC 스페셜 <그해 겨울은 따뜻했네>
00 KBS 뉴스라인 40 미디어 비평	10 금요일 기획	11 05 MBC 뉴스 24 20 자원봉사희망프로젝트 <나누면 행복>	05 스타 부부쇼 <자기야>
10 TV 미술관 ①:00 KBS 뉴스 10 독립영화관 <처음 만난 사람들>	10 유희열의 스케치북 ①:25 드라마 스페셜 <화이트 크리스마스>(재)	12 ①:10 신입사원	①:15 특집 다큐멘터리 <중경이 있는 세계 영화 산책>(재) 45 타이틀리인 ②:00 정거기행

김건모, '나는 가수다' 자진 하차

“물의 빔어 죄송” ... “20주년 음반 준비 매진하겠다”

“나는 가수다”에서 자진 사퇴하겠다는 김건모가 23일 밤 방송을 마치고 MBC 3층에서 기자들과 만나 “물의를 빚어 죄송하다”고 사과했다. 그는 “결정을 내리니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. 상반기 20주년 음반 준비에 매진할 것이다.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는 길 밖에 없지 않겠나”라고 말했다.

김건모는 제작진이 서바이벌 규칙을 깨고 첫 탈락자인 자신에게 재도전 기회를 줬다. 시청자들의 반발을 샀고 결

국 김PD가 교체되는 사태로 번지자 고민 끝에 자진사퇴를 결심했다. 그는 “결정을 내리니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. 상반기 20주년 음반 준비에 매진할 것이다.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는 길 밖에 없지 않겠나”라고 말했다.

김건모는 제작진이 서바이벌 규칙을 깨고 첫 탈락자인 자신에게 재도전 기회를 줬다. 시청자들의 반발을 샀고 결

국 김PD가 교체되는 사태로 번지자 고민 끝에 자진사퇴를 결심했다. 그는 “결정을 내리니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. 상반기 20주년 음반 준비에 매진할 것이다.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는 길 밖에 없지 않겠나”라고 말했다.

김건모는 제작진이 서바이벌 규칙을 깨고 첫 탈락자인 자신에게 재도전 기회를 줬다. 시청자들의 반발을 샀고 결

김건모는 제작진이 서바이벌 규칙을 깨고 첫 탈락자인 자신에게 재도전 기회를 줬다. 시청자들의 반발을 샀고 결

김건모는 제작진이 서바이벌 규칙을 깨고 첫 탈락자인 자신에게 재도전 기회를 줬다. 시청자들의 반발을 샀고 결

김건모는 제작진이 서바이벌 규칙을 깨고 첫 탈락자인 자신에게 재도전 기회를 줬다. 시청자들의 반발을 샀고 결

김건모는 제작진이 서바이벌 규칙을 깨고 첫 탈락자인 자신에게 재도전 기회를 줬다. 시청자들의 반발을 샀고 결

김건모는 제작진이 서바이벌 규칙을 깨고 첫 탈락자인 자신에게 재도전 기회를 줬다. 시청자들의 반발을 샀고 결

김건모는 제작진이 서바이벌 규칙을 깨고 첫 탈락자인 자신에게 재도전 기회를 줬다. 시청자들의 반발을 샀고 결

김건모는 제작진이 서바이벌 규칙을 깨고 첫 탈락자인 자신에게 재도전 기회를 줬다. 시청자들의 반발을 샀고 결

김건모는 제작진이 서바이벌 규칙을 깨고 첫 탈락자인 자신에게 재도전 기회를 줬다. 시청자들의 반발을 샀고 결

김건모는 제작진이 서바이벌 규칙을 깨고 첫 탈락자인 자신에게 재도전 기회를 줬다. 시청자들의 반발을 샀고 결

김건모는 제작진이 서바이벌 규칙을 깨고 첫 탈락자인 자신에게 재도전 기회를 줬다. 시청자들의 반발을 샀고 결

김건모는 제작진이 서바이벌 규칙을 깨고 첫 탈락자인 자신에게 재도전 기회를 줬다. 시청자들의 반발을 샀고 결

김건모는 제작진이 서바이벌 규칙을 깨고 첫 탈락자인 자신에게 재도전 기회를 줬다. 시청자들의 반발을 샀고 결

김건모는 제작진이 서바이벌 규칙을 깨고 첫 탈락자인 자신에게 재도전 기회를 줬다. 시청자들의 반발을 샀고 결

김건모는 제작진이 서바이벌 규칙을 깨고 첫 탈락자인 자신에게 재도전 기회를 줬다. 시청자들의 반발을 샀고 결

김건모는 제작진이 서바이벌 규칙을 깨고 첫 탈락자인 자신에게 재도전 기회를 줬다. 시청자들의 반발을 샀고 결

김건모는 제작진이 서바이벌 규칙을 깨고 첫 탈락자인 자신에게 재도전 기회를 줬다. 시청자들의 반발을 샀고 결

김건모는 제작진이 서바이벌 규칙을 깨고 첫 탈락자인 자신에게 재도전 기회를 줬다. 시청자들의 반발을 샀고 결

김건모는 제작진이 서바이벌 규칙을 깨고 첫 탈락자인 자신에게 재도전 기회를 줬다. 시청자들의 반발을 샀고 결

김건모는 제작진이 서바이벌 규칙을 깨고 첫 탈락자인 자신에게 재도전 기회를 줬다. 시청자들의 반발을 샀고 결

김건모는 제작진이 서바이벌 규칙을 깨고 첫 탈락자인 자신에게 재도전 기회를 줬다. 시청자들의 반발을 샀고 결

김건모는 제작진이 서바이벌 규칙을 깨고 첫 탈락자인 자신에게 재도전 기회를 줬다. 시청자들의 반발을 샀고 결

김건모는 제작진이 서바이벌 규칙을 깨고 첫 탈락자인 자신에게 재도전 기회를 줬다. 시청자들의 반발을 샀고 결

김건모는 제작진이 서바이벌 규칙을 깨고 첫 탈락자인 자신에게 재도전 기회를 줬다. 시청자들의 반발을 샀고 결

김건모는 제작진이 서바이벌 규칙을 깨고 첫 탈락자인 자신에게 재도전 기회를 줬다. 시청자들의 반발을 샀고 결

제4회 광양시정대

통쾌한 대마사냥

최강부 결승전 12보(221~261)

白 정장호 5단 黑 박광주 5단

○로 두고 있으나 집도 부족한다가 양근마가 되어 일방적으로 쫓기고 있어서 승산이 전혀 없는 형국이다. 박광주 5단이 안전하게 두면서 슬슬 쫓고 있는데도 흑 231까지 아래쪽의 백 대마가 패에 걸려 들었다. 정장호 5단은 이 미 고민에서 벗어난 모습이다. 어느 정도 기회가 있어야 긴장되는 법인데 지금은 거의 포기상태라 긴장감은 떨어졌다. 다만 이 바둑이 결승전인데다가 박광주 5단이 단칼에 목을 치지않고 있어 그냥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.

패싸움의 와중에서 '가로' 받지않고 흑 235로 둔 수가 흑으로서는 기본종은 수였다. 형세가 유리할 때는 조금이라도 변수를 줄일 수 있는 뒷맛좋은 수가 승리의 접

경이다. 백이 252로 두어 우상귀의 흑 대마에 패를 써왔을 때 박광주 5단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패를 해소해 버린다. 사실 이 대마는 버려도 많이 이겨왔다. 더군다나 흑 257로 움직이자 261까지 손쉽게 달아나는 수마저 성립되었다.

박광주 5단이 날카로운 수위기와 강판 치료 백 대마를 함몰시키고 통쾌한 승리를 쟁취하는 순간이다.

오규철 9단 <본보 바둑해설위원>

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

3월 25일(음 2월 21일 己卯)

子	36년생 남의 말 끝까지 살펴봐라. 48년생 도기에 발동 직할 수니 주의하라. 60년생 특보다 실 많고 상부상조할 기회 생기자 손실 걱정된다. 72년생 모든 일 즐거우니 하루를 편하게 지내라. 84년생 생사사 재복과 승진 영전 경사롭다. 행운의 숫자 : 03,29
丑	37년생 배탈 입술이 중경하며 지내라. 49년생 배우자편에 불행 발생한다. 61년생 부부간 인경 발생한다. 오늘을 참아보라. 73년생 생사사 재복이 찾아오는 형상이다. 85년생 생활에 만족하고 바쁜 생활 해야 한다. 행운의 숫자 : 05,40
寅	38년생 수족을 살펴봐라. 50년생 육식은 금물. 차분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모든 것을 점검하라. 62년생 우연으로 길사와 연결되나 오래는 못간다. 74년생 원기회 여행은 조심해서 행하라. 행운의 숫자 : 07,34
卯	39년생 작은 일을 주의하라 시비가 발생한다. 51년생 집전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희망적인 징후가 보인다. 63년생 좋은 일과 연결되는 형상이다. 75년생 주변에서 시끄러운 문제가 다가온다. 행운의 숫자 : 11,37
辰	40년생 주위의 시기 모함으로 손실이 우려되니 적극 참여는 조심하라. 52년생 처음부터 끝까지 신중을 신중하라. 64년생 풍류에 힘쓸려 허송세월을 보낼 수도. 76년생 하는 일이 중단될 수도 있다. 행운의 숫자 : 14,26
巳	41년생 협조자가 안 보인다. 혼자서 외롭다. 53년생 좋은 가고 길사가 접근 한다. 65년생 가까운 친척으로 손재수가 있을 수다. 77년생 남 여 간에 이성에 빠질 수니 정신을 차려라. 행운의 숫자 : 17,38
午	42년생 고목회운의 형상으로 기쁨을 얻는다. 54년생 과욕은 금물이다 자기의 내실도 챙겨야 할 때. 66년생 과묵하던 사람이 협조자로 변한다. 78년생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. 준비를 잘하라. 행운의 숫자 : 01,36
未	43년생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방법이 따로 있다. 55년생 문서와 재물이 새롭게 생겨나니 고맙게 생각하라. 67년생 병약한 길목이다 파곤이 중경될까 두렵다. 79년생 복이 될 수도 있으나 자산을 배틀어라. 행운의 숫자 : 02,43
申	44년생 부부간에 갈등은 변동으로 나타난다. 56년생 사기에 영끌 수니 신중하라. 68년생 새로운 일을 찾으니 아직은 아니다. 80년생 색정에 휘말릴 수 있으니 자제해야 하리라. 행운의 숫자 : 04,31
酉	45년생 생소한 길목에서 결정이 어렵다. 57년생 외부적인 것 보다는 내부에 활동을 집중하라. 69년생 자신의 불만사가 주변에까지 미치지 혼자서 조심하라. 81년생 좋은 매너 좋은 관계를 만나 배틀러서 보라. 행운의 숫자 : 09,45
戌	46년생 좋은 친구가 찾아온다. 58년생 집안의 시끄러움이 밖으로 날아간다. 70년생 큰 계획은 중단하고 실리 찾아 집중하라. 82년생 협조자가 생기자 참여는 피하고 선길후흉으로 불행하다. 행운의 숫자 : 19,35
亥	47년생 형제, 수하인연으로 인해 불행사가 발생하니 살펴봐라. 59년생 흉이 복으로 변한다. 71년생 희망찬 설계로 모든 일이 순행한다. 83년생 걸 닮고 속 다른 주변인이 방해를 도모한다. 행운의 숫자 : 23,44

www.cafe.daum.net/sajou114 ☎011-632-6121

EBS

06:00 실천취업가이드	10:05 두근두근 신나는 뫼미당	15:50 치료의 클래식 동요(재)	20:00 경이로운 자연의 세계 <나비의 왕, 모나리 왕나비>
06:30 인생 후반전	10:30 최고의 요리비결 <김욱란의 후다닥 만드는 인기만점 요리>	16:00 땀땀 땀땀(재)	20:30 EBS 뉴스
07:00 워드월드	11:00 60분 부모	16:20 수확특집대 우미주미	20:45 지식채널 e
07:25 치료의 클래식 동요	12:00 EBS 정오뉴스	16:45 방귀대장 뽕뽕이(재)	21:30 한국여행(광주)
07:35 꼬마기관차 토미스와 친구들	12:10 EBS 초대석	17:00 뽕뽕이와 눈보리(재)	21:50 EBS 다큐프라임 <학교란 무엇인가>
07:45 똑똑박사 에디	13:00 세계의 아이들	17:15 꼬마요리사(재)	23:10 명의 <소화기내과 전문의 김대근교수>
08:00 땀땀 땀땀	13:40 한국여행 <영덕>	17:35 신나는 요정학교(재)	00:00 시사채널 e
08:20 낭랑고나라 코코롱	14:00 다큐프라임 <학교란 무엇인가>	17:45 낭랑고 나라 코코롱(재)	00:05 금요극장 <엄마를 찾아서>
08:35 꼬마요리사	14:50 스킨 한국어	18:00 창의-인성 프로젝트 <생방송 토크! 보니하니>	
08:55 뽕뽕이와 눈보리	15:20 똑똑박사 에디(재)	18:50 와글와글 친구들	
09:10 방귀대장 뽕뽕이	15:35 꼬마 잠수함 울리(재)	19:00 오스카의 오아시스	
09:25 신나는 요정학교		19:10 좌충우돌 형제들	
09:35 출동! 소방관 샘		19:35 볼륨섬	
09:50 꼬마 잠수함 울리			

EBS플러스1	EBS플러스2
04:10 EBS 포스 <비문학>	08:00 경찰공무원 시험대비 강좌
05:00 수능특강 <이우현의 정치>	08:30 과목별 검증고시 핵심강좌
05:50 <박근수의 법과사회(1)>	09:00 중학 3학년 <사화>
06:40 <박근수의 법과사회(2)>	09:40 <도덕>
07:30 EBS 탐스런 <최주환의 세계사>	10:20 <기술가정>
08:20 EBS 포스 <영어구문투어>	11:00 Magic 중학영문법 Level 3
09:10 <고교 Vocabulary>	11:40 잊혀져 가는 것들 II
10:30 내신특강 <차개태대왕의 한국어>	11:50 중학 2학년 <역사(상)>
11:20 <김지은, 박복의 사회>	12:30 <한문>
12:10 탐스런(재)	13:10 중학 3학년 <컴퓨터>

굿모닝 잉글리쉬	오하오우 니혼고	니하오 쑹구위	한자 이야기
<p>This isn't what I had in mind 이것은 제가 생각한 바와 다릅니다</p> <p>A : I have the report ready for you to look at. B : Good, let me see. A : What do you think? B : The writing is good. But the graphics are not what I had in mind. A : I will be happy to make corrections if you tell me what you want.</p> <p>A : 보고서가 다 준비됐습니다. 한번 봐 주십시오. B : 좋아요, 한번 보죠. A : 어떻게습니까? B : 잘 썼습니다만, 도안이 제가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. A : 바라는 것이 있으시면 말해 주십시오. 기꺼이 수정하겠습니다.</p> <p>* make corrections = 수정하다 * 이것은 제 부서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아닙니다. = This is not what I had in mind for our department.</p>	<p>毎朝 何時に 起きますか。 매일 아침 몇 시에 일어나니까</p> <p>A : 毎晩 何時に 寝ますか。 B : 夜明け 一時頃 寝ます。 A : では、毎朝 何時に 起きますか。 B : 六時半ごろ 起きます。</p> <p>A : 매일 밤 몇 시에 잡니까. B : 새벽 1시경에 잡니다. A : 그럼 매일 아침 몇 시에 일어나니까. B : 6시 반쯤에 일어나니까.</p> <p>[단어정리] 毎朝 매일 아침 毎晩 매일 밤 毎日 매일 寝る 자다 起きる 일어나다 夜明け 새벽 * 주의할 시간 四時(4시) / 七時(일곱시) / 九時(아홉시)</p>	<p>鑰匙孩 yàoshi hái 열쇠+아이</p> <p>자물쇠 약(鑰), 손가락 시(匙)는 중국어에서 열쇠(鑰匙)입니다. 그리고 뒤의 孩는 아이 해자 이지요. 그럼 열쇠(鑰匙)+아이(孩)는 열쇠집 아이? 중국에서 맞벌이 부부(双薪 shuāng zhī gōng)의 자녀를 말합니다. 부모가 모두 일터에 나가 있을 때 집 열쇠 목에 걸고 다니는 그런 아이를 일컫는 말이지요. 우리는 요즘 번호 키로 바뀌어서 열쇠가 따로 없어도 되니 목에 거는 경우가 덜 해졌습니다만, 몇 년 전만해도 아이들이 목에 열쇠를 걸고 다니는 것을 많이 목격할 수 있었죠. 어린 자녀가 아무도 없는 쓸쓸한 아파트 문 열고 들어가 적당히 할 것 하고 학원 전전하는 모습이 우리나라 중국이나 마찬가지로 비슷합니다. 어떤 이는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맞벌이 한다고 하는데 맞벌이 않고 한 명은 그냥 집에서 자녀 교육하면 어떨까요? 헛소리였습니다. 나도 학원에서 살고 있는데 어디 학원 망할 일 있나요. 그래도 씁쓸합니다.</p>	<p>破瓜之年(파과지년) 깨뜨릴 파, 외과, 갈지, 해년</p> <p>파과지년(破瓜之年)은 여자의 나이 16세, 남자의 나이 64세 혹은 오이를 깨뜨린다는 뜻으로, 초경(初經)이 있게 되는 나이와 처녀성을 잃게 됨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.</p> <p>'과(瓜)'자를 세로로 나누면 두 개의 '팔(八)'자가 되는데, 이것을 합하면 16, 곧 여자의 나이 16세를 가리키고, 또 이것을 곱하면 64가 되어 남자의 나이 64세를 가리키는 수가 된다. '과(破瓜)'는 오이를 깨친다는 뜻으로, 오이를 여성으로 비유하여 '처녀성을 잃는다'는 의미와 '초경이 시작되는 나이'를 가리키기도 한다. 진(晉)나라 손작(孫綽)의 시 <정인벽옥가(情人碧玉歌)>에 이 말이 나온다. '푸른 구슬이 외를 깨칠 때, 임은 마음을 쏟아 사랑한다. 낭군에게 마음을 느껴 부끄러워하지 않고, 몸을 돌려 임의 품에 안겼네.'</p> <p>[출전] 손작(孫綽)의 시(詩) <정인벽옥가(情人碧玉歌)> * 급수 : 한자능력검정 준4급 2급 준3급 8급</p>
<동아 외국어학원 제공> www.donga.tv ☎ 222-6253	<이스카 일본어 전문학원 제공> http://www.kjasuka.co.kr ☎ 232-1503	<리틀차이나 중국어 전문학원> www.littlechina.co.kr ☎ 233-9582	<대능출판> www.daeneungedu.com